消停

去頭斷尾過油
熘龍肉
無間餓鬼哪肯剩骨頭
百年狂
鬥天地
流氓相
紅魔解體眾生解心愁

해체(解體)

우렛소리 크게 울리고
비 멈추지 않네
천지가 뒤집힐 듯 사령(邪靈)을 숙청하니
백년 붉은 마귀 하루아침 끝장이려니
비바람 지나면 하늘 곧 밝아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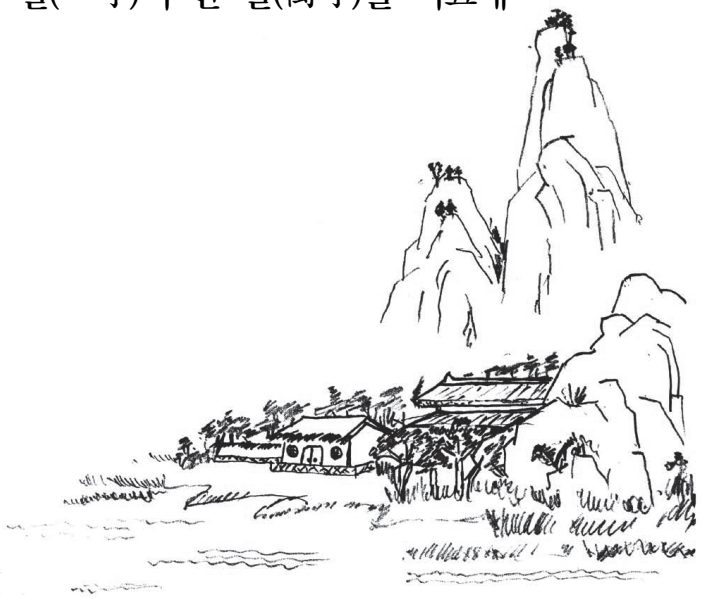
只為這一回

超越時空正法急
巨難志不移
邪惡瘋狂不迷途
除惡只當把塵拂
弟子走正大法路
光照天地惡盡除
法徒精進寒中梅
萬古艱辛只為這一回

용천사(龍泉寺)

한 걸음 오르면 하늘정원(天庭) 닿을 듯
누각의 정기(正氣) 광명을 뿌리네
법종 법고 더러움과 사악함 씻어내나니
정법진경(正法眞經)은 조정(祖廷)이라네

청풍이 불어 풍경을 흔들고
향연(香煙) 피어올라 어리석음 없애네
천신들 첩첩으로 대법을 수호하고
한 절(一寺)이 만 절(萬寺)을 이끄네



龍泉寺

一步之遙上天庭
穹廬正氣放光明
法鐘法鼓清污邪
正法真經是祖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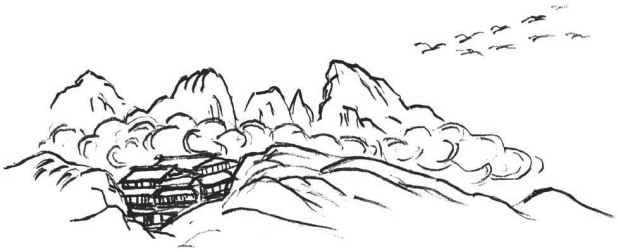
清風吹過搖風鈴
香煙飄飄化頑冥
天神森森護大法
一寺引来萬寺行

오직 이 한차례를 위해

정법은 시공을 초월한 급박한 것인지라
거대한 난에도 뜻 굽히지 않고
사악이 날뛰어도 길 잃지 않으며
먼지 쓸어내듯 악을 제거하네
제자들 대법의 길을 바르게 걸으니
천지에 빛 비춰 악을 모조리 제거하네
정진하는 법도(法徒)들 추위 속 매화이거니
만고의 간난신고 오직 이 한차례 위해서라

身敗

瘋狂無智
邪卻怕事
迫害好人無羞無恥
掏梳子
唱著吃
貪慾壯起荒淫事
漢奸賣國攀花枝
醜
壞到此
命
註定死



법이 천지를 열다

아침노을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멀리 보이는 잔월(殘月) 구름 속에 잠기네
백년 묵은 재앙 대법이 풀어내리니
믿지 않던 것이 모두 오고
진상(眞相)이 크게 드러나리니
천지는 다시 열려 또 다른 기원이 시작되리라

法開天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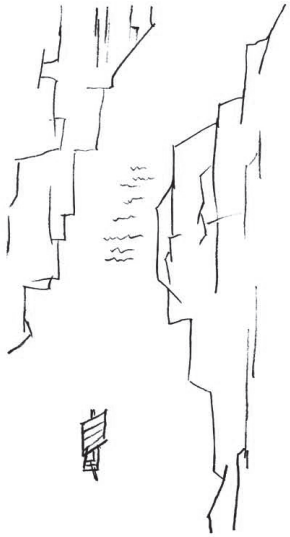
日出彩霞映滿天
遠眺殘月落雲煙
百年紅禍大法解
不信全來
真相大顯
重開天地又一元

신세를 망치다

미쳐 이지가 없고
사악하면서도 또 겁이 많은 자
좋은 사람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네
머리 갈라 빗어 올리고
흥얼대며 먹고 있네
탐욕 끝없어 황음(荒淫)한 짓거리 불러일으키고
한간(漢奸)처럼 나라 팔고 여색을 탐하네
추(醜)하다
이토록 못된 자
명(命)은
기필코 죽음이리라

災難為何多

人禍天災何時了
因由知多少
強風海嘯地又動
眾生不德災難自己種
仁義禮信都不在
只因人心改
世風日下眾助流
種種災難全都懸在頭



제세(濟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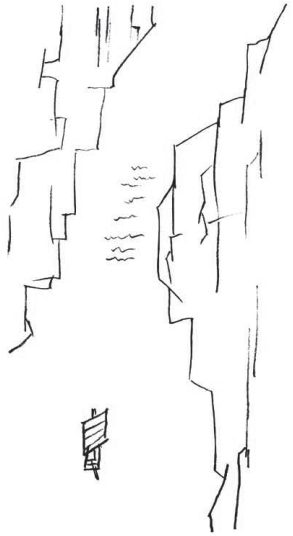
진상을 똑바로 알려 썩은 귀신 몰아내고
9평을 널리 전해 사당(邪黨)에서 퇴출시키네
정념으로 세상사람 구도하거니
거짓말을 폭로하고
닫힌 마음 열어주면
양지(良知)를 불러오지 못하리라 믿지 않노라

濟世

講清真相驅爛鬼
廣傳九評邪黨退
正念救度世中人
揭穿謊言
解開心鎖
不信良知喚不回

재난이 왜 이리 많은가

천재인화(人禍天災) 언제나 그치려나
그 까닭 얼마나 아는가
강풍에 해일 지진
중생이 부덕하여 자초한 재난이고
인의예신(仁義禮信) 모두 없으니
바뀐 인심 때문이로다
사회기풍 나빠짐은 뭇 중생의 부추김 탓
갖가지 재난이 모두 머리에 매달려 있네



乾坤再造

再造乾坤正大穹
衝破阻力一重重
正法不是洗舊塵
同化更新入大洪

진상은 근심을 풀 수 있다네

인생의 다툼 언제나 그치려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한해살이 풀이로다
중생들 세상에 무슨 일로 왔는가
진상은 마음속 근심을 풀 수 있다네

真相能解憂

人生爭鬥幾時休
是富是貧草一秋
眾生來世為何事
真相能解心中憂

건곤을 다시 만들다

건곤을 다시 만들고 대궁을 바로잡고자
겹겹이 막는 저애를 돌파하네
정법은 낡은 먼지 씻는 것이 아니거니
동화갱신(同化更新)하여 대홍(大洪)에 진입하네

見善

中原大地妖霧嵐
大法真相戸戸傳
眾生得救心漸明
警民清醒視不攔
大眾都知邪黨完
戾暴惡行人人談
惡首壞人尋退路
傳統回歸正中原

더욱 예쁘구나

뭇 꽃 좇아 아름다움 다투지 않고
추위를 이기고 홀로 향기 내뿜네
광풍이 가지를 10년 가까이 꺾었으나
하늘은 맑아오고
가지의 눈 녹고 매화가 피어 정원에 가득하네

更豔

不逐群芳秀爭豔
凌寒獨自把香散
狂風摧枝近十載
天愈晴
枝雪溶開梅花滿庭苑

선(善)이 보이네

중원대지 요사스런 안개 자욱한데
대법진상을 집집마다 전하네
구도된 중생 마음 점차 밝아지고
청성해진 경찰과 민중 보고도 막지 않네
대중은 모두 사당(邪黨)이 끝장인 줄 아는지라
난폭 악행 사람마다 말하네
악질 수괴 나쁜 사람 퇴로를 찾는데
전통이 돌아오니 중원이 바로잡히네

觀神韻

大幕拉開是天堂
神佛菩薩彩雲祥
鐘鼓齊鳴仙樂起
天娥起舞神帶揚
金剛羅漢眾天王
天幕如虹氣勢磅
法光慈悲溶觀眾
五千驚目能量強
不覺是戲如夢倘
身在意境神佛旁
感恩此行如得度
明年再來日太長

신세기(新世紀)

대법이 전해지자 천지가 놀라고
왜리사설(歪理邪說) 숨어버려 종적조차 없구나
악당사교(惡黨邪敎) 하루아침에 흩어지고
法輪(파룬)이 돌아 신세기가 출현하네

新世紀

大法開傳驚天地
歪理邪說遁無跡
惡黨邪教一朝散
法輪旋出新世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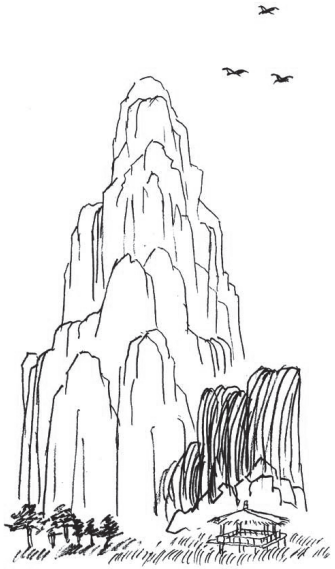
션원을 관람하다

큰 막 열리니 천당(天堂)이라
신불과 보살 꽃구름 속에 상서롭네
종소리 북소리 울리고 선악(仙樂)이 일거니
하늘상아(天娥) 춤을 추매 신이 함께 한다네
금강나한 뭇 천왕
천막(天幕) 기세가 웅장하네
법광(法光)의 자비 관중을 녹이고
오천 경탄의 눈길 에너지로 충만하네
공연이 아니라 꿈인 듯
몸은 경지에 이르러 신불의 곁에 있네
이번 행차에 구도 받음 감은(感恩)하나니
내년 다시 올 날 너무 길구나

入聖境

坡草綠
殿亭麗
身臨其境神佛地
心空善念起

風鈴響
香煙緒
留連忘歸不願去
不修等何時



양지(良知)를 지키라

몸이 홍진(紅塵) 중에 있다하여
양지(良知) 느슨히 하지 말라
선악이 미래를 정하거니
사당(邪黨)을 떠받들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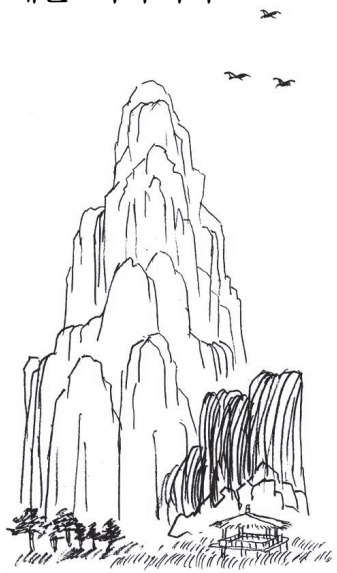
鎖緊良知

身在紅塵中
良知不可鬆
善惡定未來
別把邪黨烘

성경(聖境)에 들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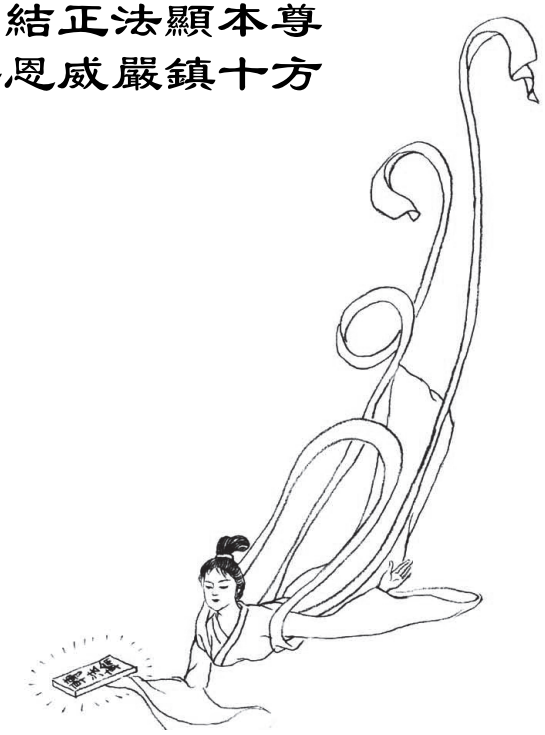
언덕에 잔디 푸르고
전각과 정자 아름다워라
신불의 땅에 와 있거니
마음이 비워지고 선념(善念)이 이네

풍경이 울리고
향연은 피어오르는데
돌아가는 것도 잊고 아쉬워 떠나기 싫거니
수련하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리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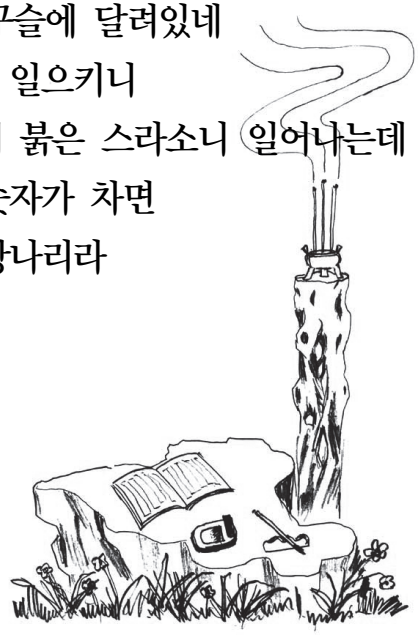
還原

真體年少壽無疆
身無時空掌天綱
為救大穹傳天法
眾生業債一身當
無量眾業成巨難
青絲斑白人體傷
了結正法顯本尊
洪恩威嚴鎮十方



겁(劫)

천체가 재구성되니
건곤에 패상(敗相)이 나타나고
대겁(大劫)이 눈앞에 이르니
뭇 신이 모두 울고 있네
홍주(洪主)가 일념을 내보내면
그것을 처음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나니
정법의 성공과 실패
뭇 마음 한 알 구슬에 달려있네
구세력이 교란을 일으키니
먼지구슬(塵珠)에 붉은 스라소니 일어나는데
구도할 사람의 숫자가 차면
사악은 함께 끝장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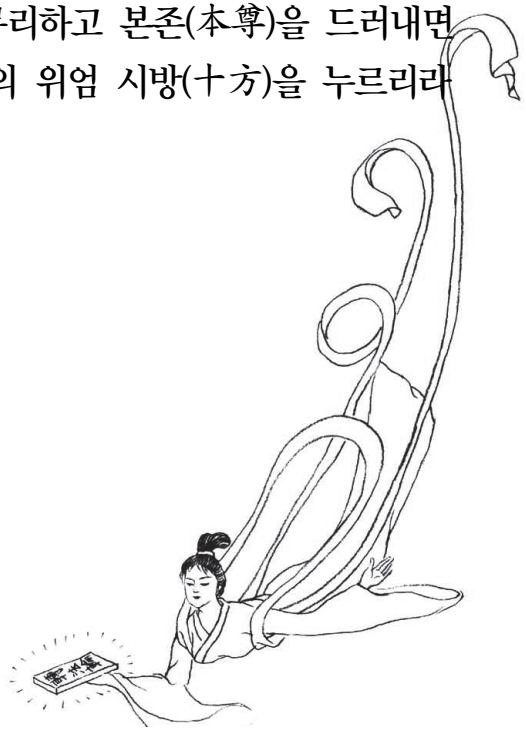


劫

天體在從組
乾坤敗相出
大劫至眼前
眾神皆在哭
洪主出一念
將其淨如初
正法成與敗
眾心懸一珠
舊勢起干擾
塵珠起紅貙
救人數一滿
邪惡一併誅

환원(還原)

진체(眞體)는 젊고 수(壽)는 무강(無疆)이니
몸은 시공을 벗어나 천강(天綱)을 휘어잡네
대궁을 구원하기 위해 천법(天法)을 전하노니
중생들이 빚진 업을 한 몸으로 감당하네
무량한 갖가지 업 거대한 난이 되어
검은 머리 희끗희끗 인체가 상했네
정법을 마무리하고 본존(本尊)을 드러내면
홍은(洪恩)의 위엄 시방(十方)을 누르리라



神在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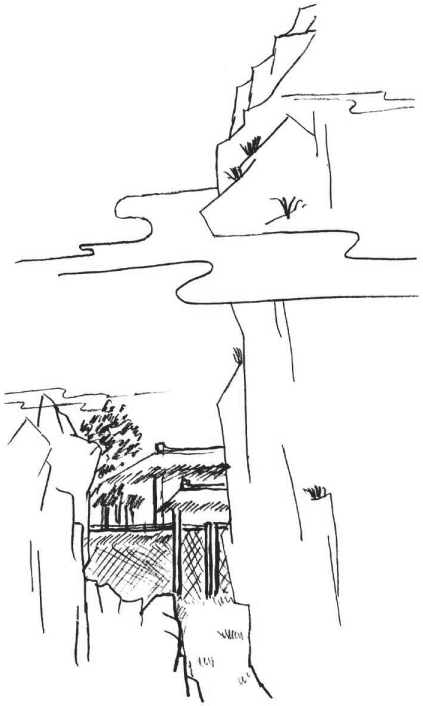
大法弟子來各邦
多少聖徒把難當
師傳大法救蒼生
各顯奇能除禍殃
助師救度世間眾
功成圓滿各一方

조사(助師)

군웅들 홍류(洪流) 중에 집결했는데
계층과 하는 일이 제각기 다르네
대법제자는 정체(整體)이거니
사부의 정법을 도와 사악한 바람을 막아내네

助師

群雄集結洪流中
階層行業不同工
大法弟子是整體
助師正法阻邪風



신이 세상에 있다

대법제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고
수많은 성도(聖徒)들 난을 감당하네
사부가 대법을 전해 창생을 구도하니
각기 자신의 능력을 다해 재앙을 제거하네
사부를 도와 세간의 중생을 구도하니
각 지역에서 공성원만 이루네

誰識

聖者卻人身
天地皆稱臣
睡如萬神主
醒來一半人
食嚼世上穀
言出法驚神
號令天輪轉
正氣鎮魄魂

누가 알리요

성자(聖者)임에도 사람의 몸이요
천지가 모두 신하(臣)라 자처하네
잠들면 만신(萬神)의 주(主)요
깨어나면 절반은 사람이라
먹는 것은 세상의 곡물이고
말해낸 법은 신들을 놀라게 하네
호령하여 천륜(天輪)을 돌리니
정기(正氣)가 혼백(魄魂)을 누르네